

# 서정과 반골, 탈경계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양 동 국\*\*

dkyang@smu.ac.kr

## 〈 目 次 〉

- |                                     |  |
|-------------------------------------|--|
| 1. 들어가며                             | 3. 탈경계의 실천으로서의 반골 - 전쟁책                  |
| 2. 탈경계의 서곡 - 서정시 속의 '주변'과<br>인간미 고취 | 입과 천황 비판<br>4. 탈경계 시인의 지향과 광역화<br>5. 나가며 |

Key word : 탈경계(Trans-Boundary), 반골(rebellious spirit), 이바라기 노리코(Noriko Ibaragi), 서정(lyricism), 인간(human)

## 1. 들어가며

일본 현대시의 연구는 본 고장인 일본에서조차 미진하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사회를 묘사하기에는 산문이 적격이라고 하는 편견과 실제로 현대문학 연구가 소설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강한 호소력과 절제된 언어의 미감이 독자를 사로잡고 시대와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문학의 문학적 미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각박한 현실 세태 속에서도 간결하게 정서적으로 환기시키고, 인간 사회를 자극하여 꿈틀거리게 하는 시 언어의 효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일본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여성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茨木のり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9443).

\*\* 상명대학교 일본어문학과 교수, 일본근대문학, 근·현대시, 비교문학 전공

1926-2006)가 73세 때 출판한 『기대지 말고(寄りかからず)』(筑摩書房, 1999년)에 대한 반향에서 엿볼 수 있었다.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의 명컬럼 「천성인어(天声人語)」에 시집명과 같은 제명의 대표시 「기대지 말고」가 소개된 후, 일본인에게 사회적 의식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일약 15만부가 팔려나갔다. 본 연구는 일본 현대시의 흐름에서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문학이 지니는 특성을 일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려는 탈경계적 시상에 주안점을 두고 그 안에 담긴 서정성과 사상성의 내밀한 미감을 음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2006년 2월 17일 어느 누구도 지켜보는 이가 없는 가운데 쓸쓸히 영면했다. 시인의 타계 후 연구의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시 분석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평론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연구의 시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평론이자 후에 단행본으로 발행된 고토 마사하루(後藤正治)의 『청렬-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의 초상(清冽-詩人茨木のり子の肖像)』(中央公論, 2010)에 그려진 시인의 전기적 연구는 일본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기었던 말년의 대표시 「기대지 말고」의 반향을 필두로 하여 그녀의 의연한 죽음을 든 시인다운 「행방불명의 시간」<sup>1)</sup>에 이르기까지 13장으로 분류해, 전체적인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시적이고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시각을 지닌 전기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추구할 탈경계의 시인으로 위치시킨 연구 논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sup>2)</sup>이바라기 노리코가 그린 현대시는 일본 전후시가 일시적으로 편향되었던 실존의 문제에서 벗어나 감수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 시상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으로는 소시민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서정시 속에 담긴 그녀의 이상은 일본의 경계를 넘어 전 인류적 보편성과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 천황제를 포함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 나아가 이웃나라인 한국의 문화와 한글에 대한

- 
- 1)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Ⅲ』ちくま文庫 p.124. 활자화 된 것으로는 마지막 시로 추정되는 「行方不明の時間」에서 가져온 섹션 명이다. 첫 두 행이 「인간에게는/행방불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人間には行方不明の時間が必要です)」로 시작되는데 시인의 쓸쓸한 죽음을 예감케 하는 시이기도 하다. 이바라기 노리코가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진 후 주검이 발견될 때까지는 바로 행방불명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 2) 본고에서의 탈경계의 의미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과 차별, 층위화(層位化) 등 인간성을 억누르고 저해하는 요소를 배격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오히려 이바라기 노리코는 일본을 제외한 타 문화권의 국가와 민족을 부각시키면서 그에 대해 존경과 동경을 한없이 내보이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본고 4장 및 5장 참조.

관심, 그리고 한국 현대시의 번역, 더불어 시작품 속에 한글을 병용하고 운동 주와의 대화를 그려내는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는 이미 일본이라는 경계를 넘은 탈경계적 시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3)한글을 병용하기도 하고 대화체 시로 독자를 고무해가는 등, 단연코 일본 현대시의 틀 안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시문학 속의 국경 및 언어 등 경계의 무용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문학에 대한 면밀한 조망은 그녀를 탈경계적 시인으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학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인문학적 작업이라 할 것이다.

## 2. 탈경계의 서곡 서정시 속의 ‘주변’과 인간미 고취

이바라기 노리코의 처녀시집 『대화(對話)』(不知火社, 1955)에는 「혼(魂)」, 「대화」, 「방언사전(方言辭典)」 등 17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중 「방언사전」은 시인이 두고 동료였던 가와사키 히로시(川崎洋)와 2인 시 잡지 「노(權)」를 창간할 때 창간호에 실린 작품이다. 후에 일본 현대시단의 한축을 이룬 「노의 모임(權の会)」<sup>4)</sup>의 그 기점에 실린 시이기에 문학사적 의미는 자못 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전개되는 시인의 문학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방언사전」의 마지막 연의 두 행은 「한 권의 방언사전을/나는 애달프게 사랑하고 있다.」<sup>5)</sup>로 끝난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투에 묻어난 사투리를 꺾

3) 줄고(2009) 「이바라기노리코와 한국-지성과 서정을 넘어」 『일본어교육』 49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07-120. 이 논문에서는 번역시집 『韓國現代詩選』(花神社, 1990)과 운동주에 대한 동경과 경도 등, 이바라기 노리코와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다뤘지만 탈경계의 시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4) 다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郎), 요시노 히로시(吉野弘), 오오카 마코토(大岡信) 등, 후의 현대시를 이끌어가는 거장들을 배출한 「노의 모임(權の会)」은 일본 현대시단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주목 받는 시동인 모임이었다.

5)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Ⅰ』ちくま文庫 p.26. 「方言辞典」 전7연 중 7연. 「一冊の方言辞典を/私はせつなく愛している.」 시인은 옛세이 「동북사투리(東北弁)」에서 어머니의 사투리에서 언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실린 인용시는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이 책에 의하며 원시는 각주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 안의 /는 행 구분을, //는 각 연 구분을 나타낸다.

전에 담고 한편으로는 9세 때 어머니를 여윈 시인이 외가가 있는 야마카타현(山形県)을 방문할 때의 실 체험적인 배경이 아른 거리고 있는 시이다. 더불어 시인의 길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걸어가야 하겠다는 언어에 대한 사랑이 마지막 두 행에 자욱이 담겨 있다. 『방언사전』에는 ‘방언’이라는 시적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상(事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어리었다. 시인의 ‘주변’에 대한 깊은 시선은 곧장 일본이라는 경계를 넘고, 곧 이어 언어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인간성을 갈구하는 시상의 근원을 이룬다.

옛날 이웃나라의 소금과 이웃나라의 쌀이/ 교환 된 것처럼/현재 머나 먼 곳의 난 꽃과 또 다른 먼 곳의 화폐가/ 비행기 편으로 거래되고 있듯이/그처럼 명확하지 않지만/귀를 열고/눈을 뜨고 있으면/그처럼 흘러가는 힘찬/어떤 정교하고 치밀한 법칙이/지구를 상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많은 멋진 선물을/얼마나 많이 받았던 것일까/이렇게 어느 아침 어느 저녁//나도 또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문자들을/끊임없이 찾아내/한편의 시를 완성할 것이다./이 부질없는 작업을 결코/6) 『조그마한 소용돌이』

인용시는 『대화』에 수록된 『조그마한 소용돌이(小さな渦巻)』의 후반부이다. 옛날부터 많은 거래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이러한 교류에 눈과 귀를 기울이면 지구는 아름다울 것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시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상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경계에서 벗어나 ‘주변’에 대한 관심이 자리한다. 멀리 떨어진 곳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문자들을 찾아내 가며 시인의 길을 묵묵히 걸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바라키 노리코가 시인으로서의 서막에서부터 서정의 시 세계 속에 탈경계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6) 茨木のり子(2010)『茨木のり子集 言の葉I』ちくま文庫 pp.52-53. 『小さな渦巻』『むかし隣国の塩と隣国の米が/ 交換されたように/現在 遠方の蘭と遠方の貨幣が/ 飛行便で取引きされるように/それほどあからさまではないけれど/耳をひらき/目をひらいていると/そうそうと流れる力強い/ある精緻な方則が/地球をやさしくしているのが わがる//たくさんのすばらしい贈物を/いくたび貰ったことだろう/こうしてある朝 ある夕/私もまた ためらわれない文字達を間断なく さらい/一篇の詩を成す/このはかない作業を/けっして. //전 10연 중 8-10연.

점은 무척 흥미롭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후에 『이웃나라 말의 숲(隣國語の森)』(시집 『춘지』花神社, 1982년)이라는 시에서 한글을 그대로 표기하고 일본어로 루비를 단 획기적인 시를 발표한 바 있는데)7) 이의 배경으로 『방언사전』과 『조그마한 소용돌이』의 서정에 담긴 내밀한 시적 사유와 사상이 열매 맺은 결과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문학에 보이는 특징의 하나로 그의 처녀 시집에서부터 일관되게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건강한 비평정신을 낳고 능률한 사회의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시 정신으로 이어진다.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인간 본위의 존엄성을 외치는 시의 예로 『좀 더 강하게(もっと強く)』(시집 『대화』)를 들어 보자.

좀 더 강하게 원해도 괜찮다/우리들은 아카시의 도미가 먹고 싶다고//좀 더 강하게 원해도 괜찮다/우리들은 몇 가지 종류의 잼/언제나 식탁에 있어야 한다고//좀 더 강하게 원해도 괜찮다/우리들은 아침 햇빛이 비치는 밝은 주방을/갖고 싶다고//달아빠진 구두는 깨끗이 버리고/딱 들어맞는 소리 나는 새 구두의 감촉을/좀 더 느끼고 싶다고 //가를 여행을 떠나는 이가 있다면/윙크로 보내는 것도 괜찮다//왜 일까/위축되는 것이 생활일 것이라고/밟어버리고 마는 촌락과 도시/집들의 차양은 눈을 치켜뜬 눈꺼풀//어 이 조그마한 시계집 주인이여/구부러진 등을 펴고 당신은 소리쳐도 괜찮다/올해도 결국 장어 먹는 토왕지절의 날은 되지 못했다고//어 이 조그마한 낚시 도구 집 주인이여/당신은 소리쳐도 괜찮다/나는 아직 이세의 바다도 보지 못했다고//여인을 사귀고 싶으면 빼앗아도 괜찮다/남자를 사귀고 싶으면 빼앗아도 괜찮다//아 우리들이/좀 더 좀 더 탐욕적으로 되지 않는 한/어떤 것도 시작되지는 않는다//8) 『좀 더 강하게』

7) 이에 대한 분석은 줄고(2009) 『이바라기노리코와 한국-지성과 서정을 넘어』 『일본어교육』 49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 115-116 참조.

8)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 I』ちくま文庫 pp.47-50. 『もっと強く』『もっと強く願っていいのだ/わたしたちは明石の鯛がたべたいと//もっと強く願っていいのだ/わたしたちは幾種類ものジャムがいつも食卓にあるようにと//もっと強く願っていいのだ/わたしたちは朝日の射すあかるい台所がほしいと//すりきれた靴はあっさりとして/キュッと鳴る新しい靴の感触を/もっとしばしば味わいたいと//秋 旅に出たひとがあれば/ウインクで送ってやればいいのだ//なぜだろう/萎縮することが生活なのだ/おもいこんでしまった村と町/家々のひさは上目づかいのまぶた//おーい 小さな時計屋さん/猫背をのぼし あなたは叫んでいいのだ/今年もついに土用の鰻と会わなかったと//おーい 小さな釣道具屋さん/あなたは叫んでいいのだ/俺はまだ伊勢の海もみていないと//女がほしいければ奪うのもいいのだ/男がほしいければ奪うのもいいのだ//

이 시에서 시인은 하루하루에 치이고 체면에 얽매인 보통 사람의 일상 속의 찌뚱을 지적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좀 더 강하게 삶의 본질을 묻는다. 그것은 바로 생활의 본질에 다름 아니며 그 출발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의 고취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려진 욕구와 욕망은 오히려 인간적인 순수함과 결부지어 있다. 조그마한 해학이 반전과 함께 이 시를 수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난해하지 않으며 읽는 이와 대화를 통해 삶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코 어려운 개념적 시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성 속에 시적 문학성을 살려가는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는 패전 후, 많은 일본 시인이 환멸과 좌절, 회한과 허무를 읊으며 전후시단을 형성해가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한 요소가 되었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일상성에 주안점을 둔 시 속에는 현실 사회를 냉철히 파악하는 준엄한 시각이 일상의 언어로 집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숭고한 외침으로 빛을 발한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 집요하리만큼의 천착과 고무는 시인을 일본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출발은 전쟁에 대한 회의와 책망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천황에 대한 비판이었다.

### 3. 탈경계의 실천으로서의 반골 - 전쟁책임과 천황 비판

이바라기 노리코에 대해 반골시인이라는 평<sup>9)</sup>이 존재하는 데 그 중심에는 전쟁에 대한 회한과 그리고 쇼와천황(昭和天皇)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에 대한 회의는 그의 첫 시집의 제명이 된 『대화』에서 공습경보의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방공두건을 쓴 소녀가 방공호에서 네이블 오렌지

ああ わたしたちがもっともっと貪婪にならないかぎり/なにごともしまりはしないのだ。//

9) 堀場清子は「われら今、あらゆる君主すてる旅路-茨木のり子の出現」이라는 평론에서 이바라기 노리코의 반골 정신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조선인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아버지에게 이어 받았다고 추론하고 있다. 山本安英 外19人(1985) 『茨木のり子』花神ブックス1 花神社 p.145.

의 하얀 꽃이 강한 향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수놓은 사자자리별과의 교감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를 질투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에 이미 투영되어 있었다. 10) 그리고 동시집에 수록된 「무자수행(武者修行)」의 강렬한 시행인 「우리들 지금, 모든 군주 버리는 여행길(われら今、あらゆる君主する旅路)」<sup>11)</sup>의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책임과 국민국가로서의 근대 일본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의 정점에 천황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욱더 불을 붙인 것이 당시의 일본 왕이었던 쇼와천황의 전쟁에 관한 발언이었다.

1975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쇼와천황 히로히토(裕仁)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동년 10월 31일 그의 생애에서 유일한 기자 회견을 황거 내에서 행했다. 물론 궁내청과의 사전 협의로 일본 기자 클럽의 이사장이 대표질문을 하였는데 방미에 대한 인상 등의 의례적인 질문이 끝난 후 런던 타임지의 일본인 기자가 일어나 전쟁 책임에 대한 질문을 했다.<sup>12)</sup> 이에 대해 천황은 “그러한 말의 수식에 관해서 저는 그러한 문학 방면은 그다지 연구를 하지도 않아서 모르니까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sup>13)</sup>고 답변 바 있다. 이를 접한 이바라기 노리코는 동년 「유리이카(グリイカ)」<sup>11월호에 시인의 분노를 그대로 담은 『사해파정(四海波靜)』(시집 『자신의 감수성 정도(自分の感受性くらい)』花神社, 1977) 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다.</sup>

10) 「대화」에 대한 자세한 평석 및 분석은 졸고(2009) 「이바라기노리코와 한국-지성과 서정을 넘어」 『일본어교육』49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08-109 참조.

11) 茨木のり子(2010)『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Ⅰ』ちくま文庫 p.31. 「われら今、あらゆる君主する旅路」이바라기 노리코의 처녀시집 『대화(對話)』에는 청춘을 전쟁을 소용돌이 속에 의미 없이 보내버린 회한과 울분을 미래의 희망과 호소로 노래한 시들을 담고 있다.

12) 이때의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황 폐하는 백악관에서 “내가 깊은 슬픔과 저 불행한 전쟁”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까. 또 폐하는 소위 전쟁 책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天皇陛下はホワイトハウスで、「私が深く悲しみとするあの不幸な戦争」というご発言がありました。このことは戦争に対して責任を感じておられるという意味と解し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また、陛下はいわゆる戦争責任について、どのようにお考えになっておられますかおうかかいたします。)” 『朝日新聞』, 1975년 11월 1일자 조간. 『朝日新聞』은 2006년 7월 13일 조간에도 「책임 묻은 유일한 회견(責任尋ねた唯一の会見)」이라는 특집으로 다시 다뤘다.

13) 「そういう言葉のアヤについては、私はそういう文学方面はあまり研究もしていないのでよくわかりませんが、そういう問題についてはお答えが出来かねます。」 출처는 주 12)와 동일.

전쟁 책임을 질문 받곤/그 사람은 말했다/ 그러한 말의 기교에 관해/ 문학 방면은  
그다지 연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고/검붉은 웃음 각혈처럼/치솟아 오르곤 그치고 또 치솟아 오른다//삼척동자라  
도 웃어버리겠지/문학연구하지 않으면 얼랄랄라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4개  
의 섬/웃고 또 웃어 울려 퍼지던지/삼십년에 하나 말도 안 되는 블랙 유머//들판의  
해골조차도/딸각딸각 웃었는데/비웃기는커녕/요리토모급의 야유 하나 날리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흠어졌는지 익명의 조롱하는 노래 속의 정신/천하가 태평하여서인가/  
묵묵히 기분 나쁜 군중과/고시라카와 이래의 제왕학/아무소리 없이 달라붙어/올해  
도 귀를 기울이는 제야의 종소리//14)『四海波靜』

시 제명인 『四海波靜』을 직설적으로 풀면 사해의 파도가 조용하다는 것으  
로 바로 천하가 태평하게 지배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역설적이고  
반어적이며 나아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sup>15)</sup>

『四海波靜』의 시적 배경은 이미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천황의 기자회견  
중 전쟁책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이 시가 1975  
년 11월의 『유리이카(グリュイカ)』에 게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시인의  
분노를 실감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11월호의 출판이 11월 1일이었다  
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자회견이 있었던 10월 31일에는 이미 잡지의 편집이  
완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四海波靜』이 실렸다는 것은 시인이 긴급히  
시의 투고를 타진하거나 강하게 의뢰했음에 틀림없다.

시의 내용에 주목해 본다면 천황의 언급에 대해 『그 사람은 말했다』고 보통  
사람의 발언처럼 차갑게 다루고 있으며 그 뒤의 행들은 해골이 비웃을 정도라

14)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Ⅱ』ちくま文庫 pp.106-107. 『四海波靜』『戦争  
責任を問われて/その人は言った/ そういう言葉のアヤについて/ 文学方面はあまり  
研究していないので/ お答えできかねます/思わず笑いが込みあげて/どす黒い笑い吐  
血のように/噴きあげては 止り また噴きあげる//三歳の童子だつて笑い出すだろう/  
文学研究果さねば あばばばとも言えないとしたら/四つの島/笑ぎて笑ぎて どよも  
すか/三十年に一つのとてつもないブラック・ユーモア//野ざらしのどくろさえ/カタ  
カタカタと笑ったのに/笑殺どころか/頼朝級の野次ひとつ飛ばず/どこへ行ったか散じ  
たか落首狂歌のスピリット/四海波靜かにて/黙々の薄気味わるい群衆と/後白河以来の  
帝王学/無音のままに貼りついて/ことしも耳すます除夜の鐘//』

15) 四海波靜이라는 어휘의 출처는 중국 송나라의 楊万里가 『六合塵清、四海波靜』라고  
언급한 데에서 유래한다. 즉 천하가 평화롭게 통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와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시가 강한 사회성과 더불어 이바라기 노리코를 반골 시인으로 거듭나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천황의 기자 회견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도 풍자와 비판, 조롱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후반부의 『요리토모 급의 야유』라고 일갈하는 표현에는 날조된 근대천황제의 권위에 대한 강한 반발과, 천황의 전쟁 발언에 대해 거의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세태에 대해 처참하리만큼의 실망과 그로 인한 처연한 야유가 담겨져 있다.

『요리토모 급의 야유』의 유래는 헤이안 말기의 혼란기에 무인인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源頼朝)가 다이라 기요모리(平清盛)의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거의 다 잡아 가마쿠라 시대를 열기 직전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당시 천황에서 밀려나 나름의 음모와 계략으로 복좌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고시라카와(後白河) 법황이 요리토모의 이복동생인 요시츠네(義経)에게 관위를 내리고 형에 대해 특별을 명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리토모가 알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내친 후, 고시라카와를 위협하였다. 이 때 요리토모의 위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시라카와가 “본의가 아니라 하늘의 마귀 탓”이라고 해괴한 변명의 서간을 보내며 용서를 빈다. 이에 대해 요리토모가 “일본 제일의 큰 괴물은 당신 말고 없지 않는가”<sup>16)</sup>라는 서찰을 보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바라기 노리코가 이 역사적 사실을 굳이 시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역사에서 천황은 나라(奈良)말기와 헤이안(平安)초기를 빼고 나면 그 존재감은 무척 미약했다. 섭정과 관백 정치로 이어지고 곧 바로 무사가 집권하여 에도말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이지기에 들어서서 만세일계의 현인신(現人神)으로 신격화한 근대 천황제가 강요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시인은 역사적 사실로 통박하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때문에 천황의 발언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이를 어벌쩍하게 보도하고, 눈을 감고 있는 일본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분노와 야유를 표현한

16) 図書双書刊行会(1993) 『玉葉』(全三卷)第三卷 p.118. 『日本国第一之大天狗更非他者候歟(日本第一の大天狗は余人の事に非ず候か)』, 요리토모가 고시라카와의 측근인 다카시나노 야스즈네(高階泰経) 앞으로 보낸 서편 속에 기술되어 있다고 당시 최고위 관리였던 구쥬 가네자네(九条兼実)의 일기『玉葉』와 가마쿠라 시대의 역사서 『吾妻鏡』에 기술되어 있다. 측근에게 보낸 편지지만 고시라카와를 향한 야유라는 설이 정설이다.

것이다. 후에 이바라기 노리코는 『四海波靜』의 창작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1975년의 기자회견은 격분할 정도로 최악이었다. 너무 최악이어서 온몸이 가늘게 떨릴 정도의 블랙 유머! (-중략) 그러나 저널리즘의 반응도, 민중의 반응도 놀라울 만큼 맛있는 것으로 같은 요리토모 급의 기억에 남을 야유 하나 날리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오래 동안 시를 계속 써 왔지만 이 천황의 말(그것이 측근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할지라도)을 그대로 버릴 수 없이, 촌스러운 것은 충분히 알면서도 『四海波靜』이라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sup>17)</sup>

이 회고문에서 천황의 전쟁 발언에 대해 저널리즘과 일반 민중의 비판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실망감이 너무나 컸으며 그것이 그녀를 분노케 하여 시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맛있는 반응의 그 원점에 근대천황제의 속박<sup>18)</sup>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처연한 실망감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녀에게 탈경제적 사유를 더욱 가속화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만이 아닌 인간을 예측하는 종속의 주체, 그것이 생명체이던 무생명체이던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저마다의 땅에서/아지랑이처럼/홀연히 향기 내는 선율이 있다/사랑 받아 사람들에게/오랫동안 이어 불러왔던 민요가 있다/왜 국가 따위/장엄하게 부를 필요가 있을까/대부분은 침략의 피로 더러워지고/칙칙한 검은 과거를 남몰래 감춘 채입을 닦고 기립하여/직립부동으로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가/듣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는

17) 加納実紀代編(1979)『女性と天皇制』思想の科学社 p.235.『いちど視だもの』「一九七五年の記者会見は怒り心頭に発するほど最低だった。最低すぎてからだがかきぎみに震えてくるぐらいのブラックユーモア! (-中略-)しかし、ジャーナリズムの反応も、民衆の反応も、びっくりするぐらい生ぬるいもので、「大天狗め!」という頼朝級の、記憶に残る野次一つ飛ばないのだった。私は長く詩を書き続けてきたものだが、この天皇の言葉(それか側近の作製になるものであったとしても)を見逃すことができず、野暮は承知で『四海波靜』という詩を書か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18) 이를 주술적인 속박이라고 하여 “근대 천황제의 주박(近代天皇制の呪縛)”이라고 표현한다. 쇼와 천황은 근대천황제에서 인간선언으로 상징 천황제의 첫 천황이다.

서지 않는다 앉아 있습니다//연주가 없어서 히전할 때는/민요야 말로 어울린다. //<sup>19)</sup>  
『시골의 노래』

『시골의 노래(鄙ぶりの唄)』는 그녀가 만년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시집 『기대지 말고』에 수록되었다. 인용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 즉 국가(國歌)에 대한 무용을 역설하고 있다. 왜 장엄하게 불러야 하는지를 대화체 형식으로 묻고 또 설득해 간다. 『침략의 피로 더러워지고』라는 표현에서 이 국가가 기미가요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가운데 『칙칙한 검은 과거』 『직립부동』 『기립』 등의 어휘로 속박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묻고 결론으로 향한다. 시적 화자는 결코 국가 제창에서 서지 않고 앉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그 어두운 노래 대신 민요로 대체하자고 한다. 여기에 보이는 시인의 의식 속에는 국가(國歌)만이 아니라 오욕에서 벗어나지 않은 국가(國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향유하며 그들이 이루어 낸 문화의 아름다움을 민요라는 어휘로 상징화하고 그 소중함을 독자에게 은은히 전하고 있다. 시인의 실생활에서도 천황 및 기미가요, 그리고 히노마루에 대해 부정했다는 에피소드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시골의 노래』만이 아니라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일본의 한 국가대표 선수가 발언한 에피소드를 시로 형상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미가요는 촌스러워서 부르지 않는다/ 시합 전에 부르면 전의가 꺾인다/ 촌스럽다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예를 달리 찾을 수 없다/제멋대로 국가가 흘러나오는 월드컵에서/나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만/어느 나라나 비슷하여/진정 촌스러웠다/매일매일 더욱 강해지는/세계의 민족주의의 과잉/그는 그것을 파헤치고 있었다/공을 차는

- 19)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Ⅲ』ちくま文庫 pp.68-69. 『鄙ぶりの唄』 『それぞれのちちから/陽炎のように/ふっと匂い立った旋律がある/愛されてひとびとに/永くうたいつがれてきた民謡がある/なぜ国歌など/ものものしくうたう必要があります/う/おおかたは侵略の血でよごれ/腹黒の過去を隠しもちながら/口を拭って起立して/直立不動でうたわなければならぬか/聞かなければならぬか/ 私は立たない坐っています//演奏なくてはさみしい時は/民謡こそがふさわしい//』 전 2연 중 1과 2연 일부. 1951년 시아버지와 함께 의학총회에 갔을 때 참석한 천황에 대한 인사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의 모티브의 하나로 추정된다. 加納美紀代編(1979) 『女性と天皇制』思想の科学社 pp.229-230.

사람은/조용히 정확히/말을 차는 사람이기도 하였다.//<sup>20)</sup> 「공을 차는 사람」

이 시는 「공을 차는 사람(球を蹴る人)」(시집 미 수록 시편)이라는 제명의 시인데 여기에는 -N·H에게-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N·H는 당시 일본 축구의 영웅이었던 나카타 히데토시(中田英寿)의 이니셜로 그는 프랑스 월드컵 때, “기미가요는 촌스러워서 부르지 않는다. 시합 전에 부르면 전의가 꺾인다.”며 특유의 강한 기질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이에 대해 부정하는 의미로 해명도 거듭하였지만 이를 4년이 훨씬 지나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뒤 다시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에 시적 제재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인간 위에 군림하는 허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시인의 지성 속에 깊이 뿌리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기미가요와 연결해 보면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을 가져왔고 천황의 만수무강을 비는 이 노래는 일본인의 의미가 전혀 결들여지지 않은 허구의 찬미에 대한 비장한 비판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당시의 축구 영웅이자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한 축구선수의 눈치 보지 않은 결연한 자기주장에 대해 노시인이 걸어왔던 시적 삶과 동류의 걱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전쟁 책임에 관한 천황 비판, 아니 근대 천황제의 정수를 꿰뚫은 사상과 기미가요 등의 국가의 내면에 자리한 실체성이라 할 수 있는 허구적 상징에 대한 비판을 시적 언어로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녀를 현대의 반골 시인이라고 위치지어도 좋을 것이다.

이바라기 노리코를 탈경계의 시인으로서의 일면을 이러한 천황제 비판과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 엿볼 수 있지만 이는 타 문화권과 타국에 대해 시선을 돌렸을 때에는 언제나 동경과 존중으로 연결되며 전 시집에 꽃을 피운다.

20) 茨木のり子(2010)『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Ⅲ』ちくま文庫 p.120.「球を蹴る人-N・Hに-」

「君が代はダサイから歌わない! 試合の前に歌う戦意が削れる!」/<ダサイ>がこれほどきっかりと嵌った例を他に知らない!やたら国歌の流れるワールドカップで私もずいぶん耳を澄したけれど/どの国も似たりよったりで/まっことダサかったねえ/日々に強くなりまざる/世界の民族主義の過剰枝はそれをも衝いていた/球を蹴る人は静かに 的確に/言葉を蹴る人でもあった!」전 4연중 3-4연.

#### 4. 탈경계 시인의 지향과 광역화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의 특징 중 특기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일관성일 것이다. 본고에서 추구하는 시인의 탈경계적 요소는 그의 첫 시집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시집까지 변치 않는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무한한 상상력과 더불어 편견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한다는 것은 시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바라기 노리코의 경우, 시적 구상에 있어 탈경계가 구체적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초기 시부터 일본 내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권력에 대한 반감,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조롱 등에서 음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시어화 혹은 한반도와의 관련을 지닌 제재에 대한 다양한 문학화는 다른 시인에게 볼 수 없는 그녀만의 커다란 시적 세계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일본 내만이 아닌 한국과의 관련 사항도 포함해 커다란 하나의 테마로 추구해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 여기에서는 극히 명료한 예를 들어보기 위해 『얼굴』이라는 시를 인용해 보자.

당신의 얼굴은 조선계다 조상은 조선계이군/이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다/눈을 감으니 본 적도 없는 조선의/너무나 맑은 가을 하늘/뽕뽕을 두한 푸름이 펼쳐진다/아마 그렇겠죠 라고 나는 대답한다//멀뚱멀뚱 쳐다보다/당신의 조상은 파밀 고원에서 왔어/단정적으로 누군가 말한 적이 있다/눈을 감으니/가분적도 없는 파밀 고원의 목초가/향기 내뿜으며/아마 그렇겠죠 라고 나는 대답했다./21) 『얼굴』

『얼굴(顔)』은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에 실린 시이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일본의 여성치고는 신장도 크고, 서구적 외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항상 단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던 시인이다. 한마디로 체형이 큰 뛰어난 미인이다. 그러하기에 어디에서나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화제에 오른

21)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Ⅱ』ちくま文庫 pp.99-100. 『顔』 『あなたの顔は朝鮮系だ 先祖は朝鮮系な』といわれたことがある//目をつむると見たこともない朝鮮の澄みきった秋の空つきぬける蒼さがひろがってくる/たぶん そうでしょう と私は答える//まじまじと見入り/あなたの先祖はパミール高原から来たんだ/断定的に言われたことがある/目を瞑ると/行ったこともないパミール高原の牧草が匂いたち/たぶん そうでしょう と私は答えた// 전 3연중 2연.

적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시적 제재로 삼은 것이 인용한 「얼굴」인데 중요한 것은 ‘조선계’라는 어휘가 지닌 무거움이다. 일본 내에서의 ‘조선’은 지명을 떠나 일말의 위화감을 지니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선계’라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에 더해 긍정적인 이미지로 시각을 활용한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한편에서는 파밀 고원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번에는 후각의 이미지를 살려 미지의 세계를 흡입한다. 이렇게 오관을 살려 또 다른 세계에 대해 긍정의 이미지로 덧칠해 나가는 시인의 시상의 내면에서 탈경계의 진면목을 대하게 된다. 그것은 「떠나면 여행을 떠나 어느 끝자락에 한순간 꽃이 핀 것」<sup>22)</sup>이 얼굴이라는 시인의 시구가 암시하듯이 우리 모두가 아득히 먼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대해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문학에서는 ‘조선’이라는 어휘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위화감과 더불어 실제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조선’과 그 후에들에 대한 관심은 시인의 어떤 내면 의식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이를 단순히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시인의 의지와 이상이라고 쉽게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국가와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의 고된 삶과 차별을 다룬 「칠석(七夕)」에서 「조선어의 화려한 싸움」<sup>23)</sup>이라는 어휘를 통해 실제 생활을 묘사하면서도 그들의 선조들에 의해 문자와 문명이 일본에 전해져 왔음을 강조하며 보통의 일본인들의 역사의 무지와 무감각 그리고 경계 지음을 통박한다. 이처럼 이바라기 노리코가 시 언어로 사용한 ‘조선’과 그와 관련된 어휘는 오히려 민족을 명확히 내세우면서 동시에 존경의 마음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꿔 말해 ‘조선’이라는 내재적 차별어를 무한의 애정 등의 의미를 담은 탈경계의 대표적 상징어로 탈바꿈시켰다. 이바라기 노리코가 국가와 민족을 명확히 내세운 것은 ‘조선’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다. 그의 시집 어디를 들춰봐도 세계 각국의 이름이 쉽게 등장한다.

22) 「顔」에는 「氣の遠くなるような遙かな道のりの/その果ての一瞬の開花なのだ」라는 시행이 인용부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23)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Ⅱ』ちくま文庫p.156. 「七夕」『朝鮮語の華々しい喧嘩』 초출은 『진혼가(鎮魂歌)』(思潮社, 1965).

알제리아 시인을 만났다/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다/말은 서로 통하지 않았다/어쩔 수 없이 둘은 뿔뿔뿔 서로 응시하며 미소지었다/ <나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 조그마한 마을도 이웃들도...>//옆에서 그의 시를 번역해 준 사람이 있어/그 짧은 한 행이 이해시켜 주었다 나에게 모르는 사람을//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검소한 이 사람은/또 무서울 정도로 느긋한 청년이었다/일본에 한참 동안 머물다 다시 방랑의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칠월의 구름 계곡에서 부는 바람 같은 것을 이쪽 마음에 남기며//24) 『모르는 사람』

인용시는 알제리아의 청년 시인을 만난 신선함을 시에 담은 『모르는 사람- 낫세르 딘에게(見知らぬ人 - ナセルディーンに )』(『인명시집(人名詩集)』山梨シルクセンター, 1971)이다. 여기에서 알제리아 시인이 읊은 시의 한 행인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에 더해 그 모르는 사람이었던 청년을 시인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그가 시인이어서만이 아니다. 한 매력적인 인간이라는 점이 기저에 있다. 이처럼 국적을 명기하는 것에는 언제나 존경의 마음이 깃들여 있고 그 저변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함이 곁들여 있다.25)

이바라기 노리코의 내면에 깃든 탈경계에 대한 의식은 단순히 민족과 국가를 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국가와 민족을 시의 전면에 내세워 경계가 저변에 그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미 ‘조선’과 기타 국가명이 지닌 시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차별과 폭력이 내재된 경계가

24) 茨木のり子(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Ⅱ』ちくま文庫 pp.36-37. 「見知らぬ人 - ナセルディーンに-」 『アルジェリアの詩人に会った/背の高い 瘦せた青年であった/言葉は互いに通じなかった/しかたなく二人はまじまじ見つめあってほほえんだ/ 私にとって父も母も見知らぬひと/ 小さな村も 隣人たちも……』 //かたわらで彼の詩を訳してくれたひとが/その短い一行が理解させた 私にとっての見知らぬひとを// 酒も煙草ものまず おそろしく質素なこの人は/またおそろしくのびやかな青年だった/日本にしばらくいて 再び放浪の旅に出るといふ/七月の雪溪から吹く風のようなものをこちらの心に残して//

25) 초기 시집부터 다양한 국명과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존경과 동경의 의미가 가득하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인명시집(人名詩集)』으로 예를 들면 『악수(握手)』라는 시에서는 『불가리아의 시인은 커다란 손으로 이쪽이 더 아팠다/로사(老舎)의 손은 부드럽러워 나의 손 안에서 아픈 듯 했다.(ブルガリヤの詩人は大きな手でこちらの方がいたかった/老舎の手はわやらかで私の手の中で痛そうだった)』처럼 불가리아 및 중국의 시인이 등장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わたしが一番きれいだったとき)』(『보이지 않는 배달부(見えない配達夫)』飯塚書店, 1958)의 마지막 행에도 프랑스의 루오 옹 등 국가와 인명이 수 없이 등장한다.

아닌 구분 지음으로 인해, 더욱더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아닌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과 집단에 대해 시문학으로 항거하며, 일상의 아름다움에서 유토피아를 찾는 순수한 인간미를 가로막는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려하는 데에 이바라기 노리코의 탈경계 사상의 특징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5. 나가며

이바라기 노리코는 초기의 서정시부터 의식적이건 무의식이건 ‘주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경계를 넘는 시상을 추구했다. 본고에서는 처녀시집인 『대화』로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대지 말고』에 이르기까지의 시집 속에서 탈경계적 주요 시상을 들어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시인의 사상성을 천착해보았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인간미를 고취시키는 시인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일관되게 건강한 비평정신과 능률한 사회의식을 끊임 없이 추구했다. 인간을 가로막는 사상(事象)에 대해서는 시문학 속에서 날카롭게 그 문제점을 추궁하고 서정성과 사상성을 합일시키며 반골 시인으로 거듭났다. 이의 구체적인 예가 전쟁 책임과 관련지는 천황 비판이었으며 기미가요를 부정하는 시상이었다. 여성 시인으로서 다른 남성 시인보다도 더 강렬히 천황을 비판하고 나아가 여전히 근대 천황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인의 역사의식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조롱과 야유를 가하며 반성을 촉구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의 사지로 내몰고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천황의 만수무강을 기리는 기미가요를 철저히 부정했다. 천황 비판과 기미가요를 부정하는 반골 정신에서 이바라기 노리코를 탈경계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문학에 보이는 탈경계는 단순히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문학 속의 경계의 무용은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에 시적 언어로 항거하며 인간다움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 사회를 전 인류적 시선으로 내다보며 경계 지음이

차별을 의미하고 인간미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시인은 준엄하게 이에 맞선 것이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 속에는 ‘조선’과 ‘조선인’라고 선명하게 시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차별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나아가 오히려 역사적·문화적으로 존경과 동경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꿔 말해 일본 내에서 ‘조선’이라는 차별적 어휘를 시 속에서는 문화 전파의 원류로서의 무한한 애정과 평등 등의 의미를 담은 탈경계의 대표적 상징어로 탈바꿈시켰다. ‘조선’ 이외에도 국가와 국적을 언급한 시작품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도 언제나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문학에 있어 탈경계의 의미는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담긴 형이상학적 가치의 존중과 역사의 직시라는 시인의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시인에게 있어 구분 짓는 것은 차별과 등위, 위층화의 의미가 아닌 다름을 존중하며 그 하나하나의 가치에 무한한 동경이 담겨 있는 그녀의 탈경계 사상을 음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교단에서 마지막 남길 말씀으로 평화를 택하셨던 한내 손순옥 교수님께,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를 염원했던 탈경계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에 관한 이 글을 바칩니다.

### <参考文献>

- 新井豊美(2006) 『「対話」への祈り 茨木のり子小論』『現代詩手帖』4月号 思潮社 pp.93-99.  
 茨木のり子(1986) 『ハングルへの旅』朝日新聞 pp.241-259.  
 \_\_\_\_\_(1990) 『韓国現代詩選』花神社 pp.8-23.  
 \_\_\_\_\_(2010) 『茨木のり子集 言の葉』ⅠⅡⅢ ちくま文庫 Ⅰ pp.14-203. Ⅱ pp.16-155.  
 Ⅲ pp.18-127.  
 加納実紀代編(1979) 『女性と天皇制』思想の科学社 p.235.  
 九条兼実(1993) 『玉葉』(全三卷)第三卷 図書双書刊行会 p.118.  
 後藤正治(2010) 『清冽 詩人茨木のり子の肖像』中央公論 pp.7-268.  
 白石かず子(2006) 『茨木のり子さんを悼む-社会派とわたくしワールド』『現代詩手帖』

4月号 思潮社 pp.59-61.

辻井 喬(2006) 『詩論的茨木のり子論』『現代詩手帖追悼特集』4月号, 思潮社 pp.90-93.

堀場清子(1985) 『われら今、あらゆる君主すてる旅路—茨木のり子の出現』『茨木のり子』花神ブックス1 花神社 p.145.

山本安英 外19人(1985) 『茨木のり子』花神ブックス1 花神社 pp.4-58.

성혜경(2012) 『이바라기 노리코의『기대지 않고』-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외국문학연구』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 pp.115-117.

양동국(2009) 『이바라기 노리코와 한국-지성과 서정을 넘어-』『일본어 교육』제49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07-120.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 **Lyrism and Rebellious Spirit, Trans-Boundary Poet Noriko Ibaragi**

Noriko Ibaragi pursued poetic sentiment climbing over a border with interest that I arrived around from early lyric poetry. I took up de-border like poetic sentiment from a main book of verse of Noriko Ibaragi in this article and took her thought characteristics seriously. The poetry of Noriko Ibaragi puts a root for the everyday life throughout. And she lets the human being beauty become exalted, and it is a person. She pursued healthy critical mind and bitterly cold social awareness through poetry without cease. She criticized it through poetry literature about tormenting a human being strictly. In that way Noriko Ibaragi let thought characteristics unite with lyrism and became a rebellious spirit poet. For a concrete example she connected it with war responsibility in poetry and criticized the Japanese Emperor and denied Kimigayo again. Noriko Ibaragi promoted reflection about the Japanese who did not get away from the restraint of the modern Emperor system of Japan. From poetic sentiment of Noriko Ibaragi denying criticism and Kimigayo of the Emperor, you may name her it as a trans-boundary poet. Noriko Ibaragi fought against power to suppress a human being as poetry to people and found human beauty.

A lot of <Choseon> appears in the poetry of Noriko Ibaragi. It has many cases that she expresses respect and an admiration for culture historically. In her having written it in the same way about other countries, a meaning of respect and the respect is included in there. Poetry of Noriko Ibaragi who is a Trans-Boundary poet is full of the love about the human being.